

강의 요약

개혁신학과 전도 방법론의 관계

Albert N. Martin

원본 강의에 근거한 한국어 요약

신학 · 전도 · 교회 · 방법론

Prepared from the original audio lecture and transcript

개혁신학과 전도 방법론의 관계

Albert N. Martin 강의 요약

전도 방법론은 신학과 분리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복음의 내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원리도 제공한다. 따라서 성경의 충족성은 전도의 교리뿐 아니라 전도의 실제에도 적용된다.

결정적인 질문은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성경적인가?”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랫동안 복음주의 전통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적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방법과 오래된 전통 모두 성경의 판단 아래 놓여야 한다.

“Our methodology in evangelism is simply an extension into life and practice of our true theology.”

1.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의 목적을 지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궁극적 목적이려면 전도의 목적도 인간의 행복이나 구원 자체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전도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부터 선포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전도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참된 예배를 가르치신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전도 이후의 고급 교리가 아니라 전도 자체의 일부이다. 또한 구원은 단순히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고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삶아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한순간의 결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권위 있는 말씀 선포가 하나님이 정하신 중심 수단이다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0장이 보여 주듯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대화도 전도에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의 고정된 진리를 제시하지 않는 열린 대화 자체가 전도는 아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사람들과 변론했지만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 음악과 개인 간증도 유익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복음 선포를 대신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서 그 명성이 곧 영적 권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 증언과 공적 설교는 함께 사용될 수 있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메시지를 분명한 말로 전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3. 진리는 이해와 양심에 자유롭게 도달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23, 야고보서 1:18, 사도행전 26:18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용하여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여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전도 방법을 평가할 때에는 먼저 내용이 성경적인지를 물어야 하며, 이어 그 방법이 진리가 청중의 이해와 양심에 분명히 도달하도록 돕는지를 물어야 한다. 사람은 생각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다루어져야 한다. 분위기나 심리적 압력으로 외적 반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죄, 그리스도, 회개와 믿음에 관한 진리를 이해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인간의 영적 무능은 전도 방법을 형성한다

자연인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 올 수 없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전도는 인간의 의지를 조작하는 기술보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와 기도에 더 의존하게 된다. 죄인에게 회개와 믿음을 명령하면서도 인간의 자율적 의지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자유로운 초청과 인간의 무능을 함께 말한다. 참된 믿음은 자기 안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믿음이다.

5. 하나님의 주권은 인내와 철저함과 겸손을 낳는다

전도의 궁극적 성공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달려 있다면 전도자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첫째 인내를 낳는다.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므로 모든 만남을 즉각적인 결신으로 끝낼 필요가 없다. 둘째 철저한 선포를 가능하게 한다. 죄,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 십자가, 회개와 믿음을 반응을 얻기 위해 축소할 필요가 없다. 셋째 결과를 보고하는 태도에도 겸손을 준다. 전도자는 중생의 창시자가 아니라 도구이다. 그러나 주권은 무활동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기도, 설교, 끈질긴 수고, 눈물과 간청 같은 수단도 정하신다.

6. 전도와 복음과 교회는 함께 속한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3장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신약에서 복음과 전도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복음은 전도를 통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은 교회의 삶으로 들어오며, 교회는 다시 복음을 전한다. 대위임령도 단순히 제자를 만들라고만 하지 않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명한다. 그러므로 전도는 결신 숫자에만 관심을 두고 이후의 세례, 가르침, 제자도와 가시적 교회 안으로의 연합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7. 진리와 오류의 대립을 보존해야 한다

성경적 신학이 진리와 오류 사이의 실제적인 대립을 인정한다면 더 넓은 전도 플랫폼을 얻기 위해 그 경계를 흐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협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전도적 열심은 언제나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8. 인간 마음의 기만성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성급히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속일 수 있고 거짓 신앙고백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와, 손을 들, 기도문을 따라 함과 같은 특정 행동만으로 즉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후의 삶에 영적 열매가 없어도 과거의 '결정'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붙들게 할 수 있다. 사도들은 교회 안의 신앙고백자들에게도 스스로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도자는 죄인의 확신을 과거의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두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성경적 전도에는 '거룩한 융통성'이 있다

성경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변하지 않는 복음과 분명한 성경 원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과 상황에 자신을 조정한다. 이것이 'sanctified flexibility'이다. 복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애물이 복음을 듣는 일을 막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다.

10. 불필요한 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관습을 따르고, 디모데에게는 유대인 사역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할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는 할례가 더 이상 중립적인 문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중립적인지만 물어서는 안 되고, 현재의 구체적 상황에서도 중립적인지를 물어야 한다. 외모, 의복, 생활 방식과 같은 문화 형식에서도 성경적 거룩함과 개인적·전통적 취향을 구별해야 한다.

11. 불신자와의 접촉은 전도 자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불신자와 자연스러운 접촉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강의에서는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고 불신자 친구들을 초대해 자연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는 모임이 예로 제시된다. 목적은 그 활동 자체를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낮추고 이후 복음을 편견 없이 들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전도 이전의 접촉이 될 수 있지만 복음 선포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 관계는 문을 열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복음이 실제로 말로 전달되어야 한다.

12. 복음을 획일적인 '정형화된 접근법'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신 방식은 현저히 다르다. 니고데모에게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할 필요를 직접 제시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는 일상적 요청에서 시작해 생수, 개인의 죄, 예배와 메시아로 대화를 이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둘 다 옳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복음이 사람에게 맞추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성경 진리가 그를 만나도록 해야 한다.

13. 청중에 따라 출발점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구약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회당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출발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한다. 반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존성과 책임에서 시작한다. 복음은 같지만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과 강조점이 달라진다. 암기한 전도 개요의 순서를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진리를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14. 전도의 형식과 구조는 다양할 수 있다

신약은 전도의 형식에서도 다양성을 보여 준다. 바울은 공적으로도, 집집마다도 가르쳤고, 회당에서 변론했으며, 공적으로 선포했고, 벨릭스와 아그립바 앞에서는 개인적 간증도 사용했다. 따라서 모든 전도 만남에 적용되는 하나의 외적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적 설교, 개인 대화, 문답, 가정에서의 가르침, 간증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은 언제나 메시지의 종이어야 하며, 개인 경험이 복음 자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15. 성경 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하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성경 진리에 충실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종교적 표현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익숙한 용어라도 불신자에게는 실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과제는 전문 용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성경적 실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를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건전한 주해와 신학,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진리가 청중의 이해에 실제로 도달하도록 표현하는 일이다.

16. 성경적 원리와 복음주의 전통을 구별해야 한다

과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법이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오래 사용된 관행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지 않는다. 성경이 원리를 정한 곳에서는 교회가 그것을 버릴 자유가 없지만, 성경이 구체적 상황과 형식을 고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지혜와 창의성과 적응의 여지가 있다. 이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통이 불필요한 경직성으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결과만으로 방법을 정당화하면 실용주의가 된다. 신학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신학을 실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합법적인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이 문서는 Albert N. Martin의 원본 강의와 공개된 강의 원고를 바탕으로 논지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원본 강의

Albert N. Martin, The Relationship of Reformed Theology to Evangelistic Methodology, SG Audio Treasures.

https://sg-audiotreasures.org/singular/am_evangelisticmethodology.htm

강의 원고

Albert N. Martin, Theology and Methodology in Evangelism, Christian Library Australia.

<https://www.christianlibrary.org.au/index.php/all-sermons/sermon/213-theology-and-methodology-in-evangelism-by-albert-n-martin>

본 요약의 16개 소제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의 논지를 주제별로 재구성한 것이며, Martin 자신이 강의를 16개 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